

여수시립합창단 제79회 정기연주회

The 79th Regular Concert of Yeosu Civic Choir

시월의 푸른밤 포항나의 밤으로 '여순칸타타'



지휘 이영만



여수시립합창단

2021. 10. 22 | 금 | 07:30 PM

GS칼텍스예울마루 대극장

문의처 | Tel 061.659.5681 **티켓** 전석 5,000원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약자, 학생 : 20% 할인

티켓 예매처 | 광우동 예총사무실(642-74666), 여서동_가을서점(652-3071), 크리스찬백화점(654-3355) 신기동_청음악기(681-6513) 학동_엘림악기(684-4156)

주최 | 여수시 **주관** | 여수시립합창단

여수시립합창단 제79회 정기연주회

The 79th Regular Concert of Yeosu Civic Choir

시월의 푸른밤 또 하나의 빛으로

‘여순칸타타 (그날을 기억하며...)’ 작품기획의도

여순사건 73주년을 맞아, 무고한 죽음과 억울한 피해를 겪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한 희망과 화합을 노래하고자 여순칸타타(그날을 기억하며...)를 공연하게 되었다.

지역의 시인 신병은님의 시 “아, 핏빛 노을이 내일의 아침햇살이 됩니다”에 곡을 붙여 창작한 곡과 여순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불리웠던 곡들을 조합하여 최고의 작곡가 이호준님이 칸타타 형식으로 만든 작품으로 향후 여순사건을 기념하는 공연 시 추가적으로 살을 붙여 하나의 큰 작품으로 확대 공연할 수 있는 뼈대가 되는 작품이다. 전반부에 여순사건의 아픔을 노래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그 아픔을 딛고 희망차게 전진하자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작사_신병은



작곡_이호준

PROGRAM

INTROIT

- Abendlied(저녁노래) Joseph Rheinberger(1839~1901)

I 순수함, 빛과 생명으로

- Pater Noster (주기도) Alejandro D. Consolacion II(1980~)
- Nothern Lights (북극광) Ēriks Ešenvalds(1977~)
- Dawn and Dusk (새벽부터 황혼까지) Ken Steven(1993~)

II 다시 노래하리, 이 아름다움을

- 가장 아름다운 노래 김효근
- 코스모스를 노래함 전경숙 편곡
- 힘내라 대한민국 소리꾼 최재일 우효원

INTERMISSION

III 여순칸타타 - 그 날을 기억하며

신병은 시, 이호준 작·편곡
Fl. 박지송 Cl. 이창호 D.B. 정호준 Perc. 전예찬 Acc. 김경호
Tim. 오미정 소리 송다빈

1. 10월의 노래
2. 산의 노래 (가을 모후산 - 김해화 시, 배창희 곡)
3. 기다림의 노래
4. 바다의 노래 (여순 동백 - 박두규 시, 한보리 곡)
5. 아침햇살의 노래

※ 본 프로그램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